

[ 사회 ]

# 캥거루 3마리 새 가족 되고 우치동물원 흥悲 호랑이 새끼 2마리 숨져

## 흥 감염 여부 조사후 31일께 일반 공개

캥거루 3마리가 26일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동지를 틀었다. 동물원간 동물교환 형식으로 미국 텍사스 한 농장에서 광주에 온 이들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 증부의 건조한 초원과 평지에 주로 서식하는 '붉은 캥거루(red kangaroo)'로, 16개월의 수컷 한 마리와 암컷 2마리다.



미국 텍사스에서 살던 '붉은 캥거루' 3마리가 26일 오전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동지를 틀었다. 캥거루 가족은 16개월된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다.

80cm×세로 60cm×높이 100cm의 좁은 상자 안에 갇혀있어야 했다. 상자 겉면에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물을 빼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캥거루는 앞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이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빠르면 31일께 일반에 공개된다.

붉은 캥거루는 보통 수컷이 ▲몸길이 약 1.5m ▲꼬리길이 약 1m이며, 암컷은 ▲몸길이 약 1.1m ▲꼬리길이 약 80cm이다. 털은 약간의 붉은색을 띤 회색이며, 짧고 부드러다.

광주 우치동물원에 14년 만에 태어난 새끼 호랑이 한 쌍이 생후 40일 만에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벵갈산 호랑이 암컷 '아롱이'가 지난 15일 오전께 자신의 새끼들을 잡아 먹었다. 사육사 이용순(57)씨는 "먹이를 주려고 우리에 들어갔는데 새끼들은 보이지 않고 바닥에 콧잔등 일부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지난달 5일 암수 새끼호랑이 한 쌍을 출산한 벵갈호랑이 '아롱이'가 새끼들에게 직접 젖을 물리고 있다. 아롱이는 지난 15일 이들 새끼들을 잡아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 생후 40일만에 어미에게 물려

로 미뤄 어미인 '아롱이'가 새끼들을 잡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롱이'가 사육장 주변의 공사 소음과 초산인 탓에 새끼들을 잘 다루지 못한 점 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벵갈호랑이는 누군가 새끼에게 접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새끼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

숨진 새끼 호랑이는 지난 200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동지를 옮긴 암컷 '아롱이'(4세)와 수컷 '사랑이'(4세)의 새끼들이며, 지난달 5일 새벽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 새끼들은 1992년 남구 사육동물원 시대 마감 후 14년 만에 처음 태어난 호랑이였다.

## 悲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책 한권 끼고 산책**  
이동성 고기잡이 영향으로 맑겠다.

**10월 27일**  
(음 9월 6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11~21℃
대전	맑음	12~21℃
대구	맑음	15~21℃
부산	맑음	12~21℃
서울	맑음	12~21℃
인천	맑음	8~23℃
안동	맑음	9~22℃
울릉도	맑음	9~22℃
독도	맑음	8~23℃
제주	맑음	12~22℃
충청	맑음	8~23℃
강릉	맑음	10~21℃
영남	맑음	12~22℃
경북	맑음	11~21℃
충남	맑음	9~21℃
전남	맑음	9~21℃
전북	맑음	10~2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4:29 썰물 < 17:22  
여수 밀물 < 11:51 썰물 < 04:58

▲해돋이 06:48 ▲해질 17:46 ▲달돋이 11:39 ▲달질 20:5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토)	29(일)	30(월)	31(화)	11/1(수)	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9/22	10/20	8/20	8/18	8/19	7/18

## 케이블 TV 선정·폭력성 심각 지상파 방송의 5~6배 수준

방송매체의 청소년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 케이블 TV 채널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 채널의 경우 지상파와 비교할 때 선정성과 폭력성이 5~6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에 의뢰, KBS와 MBC 등 지상파 4개 채널과 청소년이 즐겨보는 케이블 TV 채널 16개 등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수준을 시범평가한 결과, 케이블의 경우 1시간 동안 노출된 폭력장면이 10.7회로 지상파의 1.9회에 비해 5배 이상됐다고 밝혔다.

또 선정적인 장면도 케이블은 1시간당 6.26회로 지상파의 0.82회에 비해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정적인 장면의 경우 Onstyle은 1시간당 25.3회로 가장 많이 방영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Mnet(15.4회), OCN(11.9회), MTV(10.8회), 동아TV(8.7회) 등도 선정적 장면의 노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4월에 방영된 20개 채널의 3일분 1천27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폭력성과 선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청소년보호수준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고 청소년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청소년보호수준 평가에서는 20개 매체 평균점수가 74.72점을 기록했다. 개별 매체로는 KBS1이 94.8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Onstyle이 56.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35조1항과 50조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 절차, 허가 받지 않은 의사 표현 금지, 심의 절차와 관련된 강제 수단 등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 광주 교육계, 선거 후유증 치유 고심

### 인사탕평 확실한 의지로 갈등 풀어야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극심한 줄서기 양상을 보였던 광주교육계가 치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안순일(61·광주동부교육장) 당선자는 선거직후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탕평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행여 인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안 당선자와 맞대결해 패한 운영위원장(여·55) 광주서부교육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인사탕평으로 갈등 치유=이번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두 현직 교육장이 출마하면서 여는 선거 때 보다 줄서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x x x 장학관은 누구 편이고, o o o 사무관은 누구를 지지했다"는 이야기들은 비밀도 아니다. 두 교육장이 오래전부터 선거를 대비해 왔던 만큼 양 측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도 깊다.

안 당선자 지지 측에서는 벌써부터 '광주교육을 위기로 내몬 사람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숙정론을 제기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조직의 조화와 융합을 중시하는 안 당선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두 다 안고 가서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온다. 반면 윤 교육장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안 당선자가 앞으로 실시할 인사에게 한직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윤 교육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던 서부교육청 직원들은 '수장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안 당선자는 이와 관련, 26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을 통해 "윤 교육장과 1년 넘게 근무해봤는데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뒤 "선거 중 비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이 없으며 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장은? = 광주시교육감 결선 투표에서 탈락한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장의 향후 거취 역시 교육계 안팎의 최대 관심거리다. 우선 안 당선자는 다음달 7일 취임 이후 곧바로 교육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교육감 당선으로 인해 동부교육장 자리가 비어 교육감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패한 윤 교육장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당선자는 국정감사장 목실 파문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윤 교육장에 대한 선처를 위해 "국회에 고발취하를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부교육장 임명에 대해서는 직무공모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부교육장 교체 임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윤 교육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육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애물단지' 광주김치센터 광주시가 인수 운영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광주 김치종합센터가 광주시로 인수된다. 광주시는 26일 "남구가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김치를 테마로 건립중인 김치종합센터의 운영권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남구의 김치종합센터가 설립 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하게 추진, 남구측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종합 감사를 벌여 책임소재를 따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난 2004년 2월 남구 임암동 일대 부지 2만4천여평에 착공, 이미 196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업비가 부족해 준공시기를 넘기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또 건물 준공과 함께 오·폐수와 기계, 전선시설, 조경 등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데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 확보에도 애로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달 시에 추가사업비 확보와 관리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치센터 공사차질은 사업을 추진한 남구가 애초 4층 규모를 6층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졸속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용역제공에 선도적 기업"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직임용계획-감리모집**

구분	직책	인원	요건
신입	건축사	1명	1.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건축사	1명	1.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경력	건축사	1명	1.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건축사	1명	1.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2. 2006. 10. 1. 현재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70,000원**을 돌려준다구?

**왜? 어째서?**

1. **비밀정보 제공**  
2. **비밀정보 제공**  
3. **비밀정보 제공**

**리틀차이나 中国語学院**

www.littlechina.co.kr